

“난적 호주 꺾고 조 1위로 8강”



조광래호 회복 훈련... '퇴장' 과태휘 자리에 조용형

1988년 이후 23년 만에 아시안컵 1차전에서 승리의 달콤함을 맛본 한국 축구대표팀이 11일(이하 현지시간) 훈련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배려하며 2차전을 기약했다.

조광래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날 카타르 도하 인근 알와크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훈련에 전날 바레인과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1차전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11명을 뱉어 12명만 참가하게 했다.

바레인과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던 11명은 속수에 머물며 가볍게 몸을 푸는 수준으로 14일 호주와 2차전을 준비했다.

반면 훈련에 참가한 12명은 상대로 조광래 감독은 배정된 훈련 시간 2시간을 거의 꽉 채우고서야 마무리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오후 6시쯤 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다시 23명이 모두 모여 6일 도하 도착 이후 처음으로 외식을 하며 분위기도 바꿔졌다. 지원 스태프까지 약 40명 정도의 선수단은 도하 시내 양 갈비 전문점을 찾아 바레인과 1차전 혈투를 치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강했다.

달콤한 휴식을 취한 태극전사들은 14일 밤 10시15분(이하 한국시간) '사카루' 호주를 상대로 2차전을 치른다. 조별리그 C조 2차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는 조 1위를 결정짓는 승부가 될 전망이다.

첫 경기에서 나란히 바레인, 인도를 물리친 한국과 호주는 각각적인 전력에서 나머지 두 팀에 앞서고 있어 이날 경기에서 이기는 쪽이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 26위 호주는 40위인 한국보다 앞서 있으며 23명 엔트리

가운데 해외파가 19명이나 될 만큼 선수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한국은 바레인과 1차전과 비교해 선발 출전하는 11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원(20·전남)이 유통으로 나서고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정용(23·불란)이 좌우 측면 공격을 맡는다.

바레인은 상대로 두 골을 몰아치며 주자가 급상승한 구자철(22·제주)이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고 기성용(22·셀틱)과 이은재(25·수원)가 중원 미드필드에서 공수 조율을 한다.

수비에서는 과태휘(30·고토상가)가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왼쪽의 이영표(34·알힐랄)과 오른쪽 차두리(31·셀틱), 중앙 한 자리의 이정수(31·알사드)는 그대로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크고 과태휘 자리에는 조용형(28·알리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북한, 골대 불운에 UAE와 무승부

이란, 이라크 2대1 꺾어

18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북한이 '골대 불운'에 막히며 첫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다.

북한은 11일(한국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클럽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11 아시안컵 D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반 7분 흥영조의 페널티킥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 속에 아랍에미리트(UAE)와 득점 없이 비겼다.

지난 1992년 일본 대회 이후 18년 만에 본선 무대를 밟은 북한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대세(함부르크)와 러시아에서 활약하는 흥영조(로스토프)를 최전방에 배치한 4-4-2 전술을 앞세워 경기 초반 점을 원터치 패스로 UAE의 문전을 위협했다.

전반 7분 페널티킥을 염은 북한은 키커로

나선 흥영조의 오른발 슛이 크로스바를 때리고 뛰어나오면서 완벽한 골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양팀은 후반 공세를 이어갔지만 득점에 실패하며 0-0으로 경기를 마쳤다.

1무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따낸 북한은 오는 15일 강호 이란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알라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같은 조 이란과 이라크의 경기에서는 이란이 2-1로 이겼다.

1-1로 팽팽히 맞서던 두 팀의 경기는 후반 39분 이만 모발리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이란 쪽으로 기울었다. 이란은 2003년 8월 이라크에 0-1로 진 이후 이라크를 상대로 5승1무의 강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골대를 뚫지 못한 북한은 키커로

한국축구 FIFA랭킹 40위→39위

한국 축구의 새해 첫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이 39위로 지난달보다 한 계단 올라섰다.

한국은 FIFA가 12일(한국시간) 발표한 2011년 1월 남자축구 세계 랭킹에서 649점을 받아 지난달 40위에서 39위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세 번째다. 한국과 오는 14일 열릴 2011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맞붙을 호주가 26위로 가장 높고 일본이 29위로 뒤를 이었다. 이란(65위), 사우디아라비아(78위), 중국(79위)이 한국의 뒤를 따랐다.

호주와 함께 한국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상대인 바레인은 93위, 인도는 144위에 자리했다. 북한은 109위로 지난달보다 한 계단 내려 앉았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킨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브리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우루과이, 포르투갈 등 2~8위까지 순위도 변함이 없었다.

▶골대를 뚫지 못한 북한은 키커로

/연합뉴스



12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 열린 '2011 평창 FIS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 첫날 K-125경기에서 국가대표 강칠구가 멋진 품으로 날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마리 새처럼

가운데 해외파가 19명이나 될 만큼 선수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한국은 바레인과 1차전과 비교해 선발 출전하는 11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원(20·전남)이 유통으로 나서고 박지성(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정용(23·불란)이 좌우 측면 공격을 맡는다.

바레인은 상대로 두 골을 몰아치며 주자가 급상승한 구자철(22·제주)이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고 기성용(22·셀틱)과 이은재(25·수원)가 중원 미드필드에서 공수 조율을 한다.

수비에서는 과태휘(30·고토상가)가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왼쪽의 이영표(34·알힐랄)과 오른쪽 차두리(31·셀틱), 중앙 한 자리의 이정수(31·알사드)는 그대로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크고 과태휘 자리에는 조용형(28·알리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고비마다 미들슛·리바운드

신세계 꺾고 단독 3위 점프

크게 앞서고 팀 플레이를 살리지 못한 채 외곽슛에만 의존해 날짜를 봤다. 3점슛 17개를 던져 단 하나만 성공시키는 등 숏이 터지지 않아 쉽게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블더블을 기록한 신세계의 주포 김정은(19점 10리바운드)이 4쿼터 들어 뒤늦게 과감한 골밑 플레이로 점수를 보탰지만 KDB생명도 신장자 고비 때마다 정확한 미들슛을 터트려 추격 의지를 꺾었다.

신세계 김계령도 17점 13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가렸다. /연합뉴스

KDB생명 신정자 '더블 더블'

여자프로농구 구리 KDB생명이 3위 자리

나눠 가졌던 부천 신세계를 완파하고 기분 좋게 3연승 행진을 벌였다.

KDB생명은 12일 오후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0-201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18점을 넣고 리비운드 13개를 잡아낸 신정자의 활약으로 신세계에 58-53으로 이겼다.

더블더블을 기록한 신정자 외에도 이정은과 한채진이 13점씩, 조은주가 10점을 보태면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 8일 선두 안산 신한은행의 13연승을

저지하면서 기세를 올린 KDB생명은 최근 3연승으로 11승10패가 돼 단독 3위로 올라섰다. 신세계와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4승1패로 우위를 점했다.

반면 최근 2연승을 달렸던 신세계는 이날 패배로 10승11패가 돼 승률이 다시 5할 아래로 떨어졌다. KDB생명은 1쿼터부터 신세계의 기세를 꺾어 놓았다. 상대 공격은 6점으로 불어막고 조은주와 한채진이 각각 8점씩 넣는 등 내·외곽슛과 터지면서 21-6으로 달아났고 리드는 끝까지 이어졌다.

신세계는 이날 리비운드 수에서 38-21로 크게 앞서고 팀 플레이를 살리지 못한 채 외곽슛에만 의존해 날짜를 봤다. 3점슛 17개를 던져 단 하나만 성공시키는 등 숏이 터지지 않아 쉽게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블더블을 기록한 신세계의 주포 김정은(19점 10리바운드)이 4쿼터 들어 뒤늦게 과감한 골밑 플레이로 점수를 보탰지만 KDB생명도 신장자 고비 때마다 정확한 미들슛을 터트려 추격 의지를 꺾었다.

신세계 김계령도 17점 13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가렸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올스타전 팬 대상 덩크슛·3점슛대회

'슈퍼스타 KBL' 이벤트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0-201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농구팬을 상대로 '슈퍼스타 KBL' 이벤트를 연다.

KBL 올스타전 최초로 기획된 '슈퍼스타 KBL'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덩크슛 및 3점슛 대회로, 사전 서신 심사 합격해 예선을 거친 농구팬들끼리 실력을 겨룬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0명의 참가자는 예선을 치러 종목별로 2명씩 결선에 진출해 맞붙는다. 100명의 참가자 모두 KBL

이 마련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올스타전 인기 이벤트 '아빠의 도전'은 사연 심사에 합격한 3명의 아버지가 참가한다. 24조 안에 가장 많은 자유투에 성공하는 참가자에게 우승컵이 돌아간다. '엄마의 도전' 역시 3명의 어머니도 전자가 참가하는 올스타전 이벤트로, 코트 중앙의 미션 상자에 담긴 의상을 입고 가장 먼저 득점에 성공하면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및 17개 살림방3개별로

매기 3억, 월500만원 수입

저리리시대의 수익성부동산 가격절충가능

전화 010-8247-1001

상속 정한 경승인공고

전주시지법 정승인공고

시기번호 : 2011-느2

시 장 자 : 김태준(330-813-1535410)

최후주소 : 정읍시 구룡면 628

등록기준지 : 전북 정읍시 구룡면 628

위 망 김태준의 속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정승인공고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세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한국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세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니 이하라면 청산에서 제외됨.

2011년 01월 13일

-본부원장 : 연수기념관 진관법원에 의한 연수기념관 사업

(제10-000041호)

* 주식회사 세노도리

전주부도시 목포시 대동2동 521-16

대표이사 박 문 수

* 주식회사 세이에이치나이어링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정동 966-14

대표이사 장재 균·윤석호·고재 향

상속 정한 경승인공고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및 17개 살림방3개별로

매기 3억, 월500만원 수입

저리리시대의 수익성부동산 가격절충가능

전화 010-8247-1001

비단가 전원주택 부지

200+300+500평